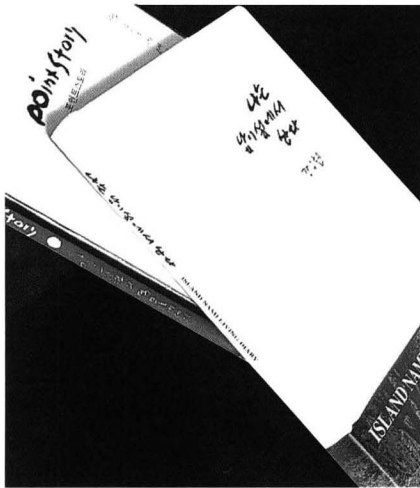


동화나라의 목수, 그의 즐거운 인생!



책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사적이고, 일기장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공적이고...

강우현의 두 책 《포인트스토리》와 《나는 남이섬에서 산다》는 책과 일기장 사이, 그 여백에 들어갈 만한 책이다. 점에서 출발해 점으로 끝나는 그림 일기인 《포인트스토리》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과 같은 이야기' 라 해도 좋고, 《나는 남이섬에서 산다》는 강우현이라는 괴짜의 자신과의 독백일기라 봐도 무방하다.

“《포인트스토리》는 6년 전에 구상한 겁니다. 《나는 남이섬에서 산다》는 재미삼아 한 것이고, 다른 것도 있으면 해서 낸 거예요. 두 책이 동시에 나온 것은 한 책은 너무 차갑고 다른 하나는 푸석푸석하고...그래서 함께 내서 온도를 맞추려고 한 겁니다.”

《포인트스토리》는 어른 동화를 염두에 두고 출간했지만, 오히려 나이가 올라갈수록 어렵다는 반응이라고. 읽는 사람에 따라 책을 받아들이는 방식도 천차만별. 예를 들어서 디자인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점, 선, 면에 관한 책

이라고 보고, 유치원 교사들은 글도 짧고, 그림이 있는데 영어로도 되어 있어 유아들의 창의성 교재로 받아들인다. 이는 그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반응으로, 실제로 유치원에서 주문이 간간이 오는 등 특수(?)를 누리고 있다.

“특별히 책을 낸 의도는 없다. 그냥 이런 놈도 있다,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 강우현을 설명하자면 꽤 긴 문장이 필요하다.

디자인회사 알씨컨텐츠와 남이섬 경영을 맡고 있으며, 국제아동도서협의회(IBBY) 한국위원장이다. 1986년에 NOMA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 원화 콩쿠르(일본)에서 그랑프리, BIB-89(체코)국제그림책원화비엔날레에서 금패상, 일본 고단사출판문화상 그림책 부문상, 한국디자이너 대상, 한국 어린이도서상 등을 수상했으며, 1998년 프랑스 칸영화제 포스터를 디자인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좋은아버지가 되려는사람들의모임'을 만들고 재생공책 보급운동을 하기도 했다.

“출판이든지 언론이든지 이런 곳이 리버럴한 것 같으면서 대단히 보수적이거든요. 자기는 절대로 안 바꾸면서 남만 바꾸려고 하지요. 독자들에게 아무하는 책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너무 돈돈돈 해서 생기는 일종의 대박병 때 문입니다. 출판계 고질병이이지요. 그거 하나 때문에 어려움을 견뎌가며 가는 출판사들이 많은데, 책은 복권하고 틀려요. 기획단계부터 치밀하게 하고 전망위 상품처럼 생각해야 해요. 엽서,

책을 넣을 가방 등 연계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고려하고, 만 원으로 정가를 책정하면 적당한 책에 부가가치를 부여해 삼만 원도 받을 수 있도록 책에 대한 접근이 좀더 다양하고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강우현은 좋고 싫음이 분명하다.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간다.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하지 않는다. 단, 말으면 누가 뭐라고 하건 개의치 않고 신명나게 일한다. 생활방식이 이렇다보니 그는 일과 놀이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든다.

“애하고 남이섬에 자주 놀러가곤 했어요. 어느 날, 저보고 안 쓰는 집 하나 고쳐서 작업장으로 쓰라고 하시더군요. 한 8개월쯤 지났다, 내가 삼질하고 일하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지 말고 당신이 여기 사장해라, 그래서 놀러갔다 사장된 거지요.”

그가 (주)남이섬측의 제의를 받아들이면서 주문한 것은 한 가지. 말되 내 방식대로 하겠다는 것이었다.

“난 동화적으로, 디자인적으로 경영을 하겠다. 그걸 믿는다면 내게 맡기고 간섭하지 말라. 대신 수익을 내지 못하면 월급은 백 원만 받겠다. 그래서 일 년 간 정말 백 원만 받았어요. 일 년 지나자 남이섬을 찾는 분들이 늘더라구요. 돈을 벌라고 아동바둥하지 않아서,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려고 노력하다 보니 오히려 더 찾아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요즘 남이섬의 풍경은 예전과 다르다. 타조와 사슴 등 동물들과 사람들이

길에서 자연스럽게 마주치기도 하고, 잔디밭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기도 하고 축구도 한다. 여기저기 동물 똥이 있긴 하지만 조심조심 걸어다니면 그만이다. 매점에서 파는 물건 가격도 내렸다. 이 모두가 남이섬을 노래가 울려 퍼지는 '동화나라'로 만들기 위한 일환이다. 시간이 좀더 흐른 후 남이섬에 가면 우리는 정말 성냥팔이 소녀의 성냥을 사줄 수도 있을 것이고, 미운 오리새끼도 만나고, 물방울로 변하기 전의 인어공주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동화나라가 따로 있는 게 아네요. 소재만 있는 겁니다. 토끼도 왔다갔다 하고 그걸 보면 평화로워 동화적인 생각이 들겠지요. 난 성공을 바란 것이 아니라 구슬을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언젠가 이 일들이, 구슬이 꿰어질 때가 있을 것이라고. 이제는 모든 걸 남이섬으로 모아요. 절 부르는 사람들도 남이섬으로 오라고 해요. 국제아동도서협의회 사무국도 남이섬으로 옮겼죠.”

자신이 즐거워야 남들도 즐거울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은 일단 적중한 듯하다. 남이섬을 찾는 사람이 많이 늘어 월급 백 원짜리 사장이 <안테르센 동화와 원화전>이라는 행사 스폰서를 할 수 있을 만큼 (주)남이섬을 흑자 경영으로 돌려놓았다.

“오는 3월 14일부터 4월 6일까지 예술의전당 디자인미술관에서 안테르센 탄생 200주년 기념 전시회를 할 예정입니다. 후원금은 남이섬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서 그 수익금으



“난 목수예요. 목수는 자기가 만든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난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인데 미처 생각 못한 일을 먼저 벌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행복이란 게 뭐 별건가요, 내 좋아서 일하고,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행복이지요.”

로 하는 거고, 전시회 끝나면 남이섬에 안테르센 홀을 만들 겁니다.”

2005년 4월 2일은 안테르센이 탄생한 지 2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안테르센 자신은 동화 같은 삶을 살지 못했지만, 《미운 오리새끼》《성냥팔이 소녀》 등 많은 사람들의 어린날을 윤택하게 해준 아름다운 동화를 발표했다. 안테르센의 탄생을 기념하여, 유럽에서는 덴마크를 중심으로 각종 축제행사가 2005년 그의 탄생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국제아동도서협의회 한국위원회(위원장 강우현)가 중심이 되어 육필원고 및 최초의 동화책과 함께 세계 안테르센 도서전, 애니메이션 상영, 어린이 연극 등의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난 목수예요. 목수는 자기가 만든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난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인데 미처 생각 못한 일

을 먼저 벌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행복이란 게 뭐 별건가요, 내 좋아서 일하고,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행복이지요.”

끊임없이 다른 관심거리와 저지를 일을 찾아 나서는 사람, 강우현의 머릿속에서 지금 잠수중인 책은 올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들 준수가 가장 이뻐 보이던 때에 관한 이야기다.

“《내가 다시 일곱 살이 되면》이라는 책을 구상중이에요. 다시 일곱 살이 되면 하고 싶은 거에 관한 책이 될 겁니다.”

목수는 자신이 만든 집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지만 그는 남이섬을 동화나라로 만들고, 그 나라에서 살고 싶을 만큼 현재 남이섬에 폭 빠져 있다. **✎**

취재 양선희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